

그리스도의 재림과 전도자의 삶

-복음으로 여는 데살로니가후서-

다니엘 12:2-3, 데살로니가후서 2:1-2

정윤돈 목사님

* 단12:2-3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 살후2: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가지, 12가지 속에 있는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격까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절대불가능이 지유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흑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이 나와 나라와 민족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동안 일산 킨텍스에 1만 5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 소규모로 성경공부를 할 때와 여러 명이 모일 때의 은혜가 다른 것 같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봉사하는 분들은 많이 어려웠지만 거기서 얻은 것이 많을 줄 믿는다. 거기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다 찾아내는 모두가 되시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저는 나의 현장, 나의 땅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만남을 통해 문을 여시고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시간이었다. 많은 응답을 받은 현장이었던 것 같다. 요즘 남태평양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남태평양 10개국에서 오셨다. 그 외에도 거의 100개국에서 왔다.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도 말씀을 구경만 하지 말고 성취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저는 앞으로 3기업을 만들어갈 것이고 모든 분야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팀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이 한 현장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복음이 있으면 모든 분야가 선교와 전도의 통로가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끝내지 않으면 내 현장이 지옥처럼 된다. 여러분은 이시아처럼 복음으로 결론내시기 바란다.

오늘 메시지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제는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고 있다. 서울대 종교학과 한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 한국 국민 중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약 40%이고, 비종교인이 60%라고 한다. 그런데 무신론자 중에서도 지옥과 심판을 믿는 사람이 90%라고 한다. 우주가 끝이 없고, 성경에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신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걸 가지고 입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사기를 친다.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오셨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증인은 삼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천

국에 가려면 다 시험을 본다. 오직복음, 오직전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현장에 있는 게 축복이다. 그리고 오직복음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들 내 기준, 내 사상, 내 이념, 내 이익, 내 지식이 앞서기 때문이다. 다 보면 결국 내 자식, 내 돈, 내 자리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없다. 잘못된 것은 개혁하고 갱신하고 회개해야 한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된 부분은 잘못이 많다. 당연히 갱신하고 회개해야 한다. 어떤 분은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에 한 번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의 가정문제, 증독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된다. 그게 안 되면서 되는 척 하나까 안 되는 것이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가장 큰 도시였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이름은, 카산드로스 왕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왕의 딸이며,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여동생인 데살로니케와 결혼하여 마케도니아 왕위에 오른 후 BC.315년 성을 재건하고, 도시 이름을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지었다. 즉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왕의 이복여동생의 이름이다. 세월이 흘러 AD.146년 마케도니아 지방이 로마에 귀속되면서 ‘데살로니가’는 그 지역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팀이 아손이라는 예비된 사명자를 만나고 데살로니가교회가 설립되게 되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도 다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다. 현장에 가면 정말로 제자들이 있다. 지금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라. 저는 제자가 아니면 관심이 없다. 스페인과 홍콩에 가서도 제자만 찾는다. 이번에 WRC기간 동안 한 선교 사명을 만나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보니까 정말 성경처럼 복음을 전하고, 열두 제자를 찾고, 그 제자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더라. 현장에 전도대상자도 많지만 제자는 따로 있다. 제자는 몇 마디만 해도 자기 역할을 담당하고 끝까지 간다. 충성된 자, 사명자, 갈급한 자, 보호대상자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바울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루디아와 아손 같은 제자를 찾았다. 제자는 복음에 눈이 반짝반짝 반응한다.

1.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림과 휴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하는 만화 같은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기도 하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유를 가지고 건강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제자, 후대,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과 휴가에 대한 모습을 가장 짧으면서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했다. 우리가 살릴 대상들이 많다. 장애인이라고 실패자가 아니다. 공부를 잘해서 성공자가 아니다. 영적서밋,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다. 이 복음을 알고도 누리지 못하고 사업과 일 때문에 헛갈리고 있다면 그 고민과 염려를 다 기도로 바꿔라. 그게 성공자다. 모든 호효과 문제를 기도로, 축복과 깨달음으로 바꿔라.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바뀌지 않는 게 데살로니가교회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구원 받아놓고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도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거나 부활체로 변하게 된다.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있을까 육으로 있을까? 부활체로 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우리는 기뻐할 것, 감사할 것, 전도할 것 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면 다 살릴 대상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들은 영원히 썩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천명, 소명, 사명이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 즉 절대성이다.

(2)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서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과 휴거,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는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도 지구가 이상하다. 정말 재앙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오늘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만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

(3) 날과 때는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듯이 우리는 언제나 직장생활과 모든 일을 그대로 해야겠다.

(4) 또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다시 오실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다.

(5) 다니엘 선지자도 2,600년 전에 마지막 대환란과 심판에 대하여 예언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에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이 영접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영원히 빛나리라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지금의 말세 시말을 예언하고 있다.

2.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받을 축복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와 주의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님의 재림 때에 성도들이 받을 축복이다. ①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천년왕국의 모습을 이사야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쫓는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을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런 천년왕국시대를 말한다. 지금 이 땅에서는 아쉬운 점들이 많지만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산다는 말이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다. 여러 가지 천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들을 이야기하는데 천년설이 없어도 된다. **예수님을 믿는 지금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이기에 때문이다.** ②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나 신천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에서 제외하여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보겠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외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외하여 버리시리라”

(2) 다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잘못된 종말론과 말세에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잘못된 재림신앙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게으르게 행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아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지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전도자와 중간사역자에게 요구하는 게 다르다.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다. 사역자는 상대방이 어떤 대상자인지 알고 미션을 줘야한다. 회사에서도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하라고 어려운 걸 시킨다.

(3) 다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일까? ① 예수님께서서 당장 내일, 다음 주에 오시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흠 없이 보전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의 호흡과 음식과 균형들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이 미리 건강을 확인하고 준비하고 음식도 신경써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 전도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하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든지 후대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한다. ② 그리고 예수님께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에는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둬를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둬를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어느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당장 내일 오시더라도 237 나라와 치유와 서밋을 위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겠다. 저는 237을 위해 문 열어주시고 경제 더해달라고 기도한다. 문 열어주실 때 가면 된다. 돈 없으면 안 가면 된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 우리 단체는 일용할 양식이 세계복음화이다. 더 응답받고 동참하시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도 우리 후대들을 해외연수 보내고 어학연수 보낼 것이다. 현장에 눈이 열려야 한다. 기도로 하나되면 절대불가능이 없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7.7.7기도문 중 7여정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여정 7가지는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회이다.

“①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②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③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더해서 말합니다. 나에게 10가지 발판을 놓이게 해 주옵소서. ④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⑤ 나와 현장을 바꿔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⑥ 62가지 평생에 누릴 답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성경적인 재림의 복음과 자세를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해, WRC를 통해 많은 깨달음과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확실하고 영원한 복음, 성경적인 복음을 잘 정리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와 성도되도록 하시고 후대들이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으로 복음화하는 데에 300%성공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